



말씀의 초대 | 마태복음 8장 5~13절

## 믿음으로 살라



강양규 목사  
세빛성결교회  
미주지역총회 미국동부지방회장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찾아와 중풍병으로 고통받는 하인을 위해 간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고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자 백부장은 뜻밖의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에 예수님께서 놀라시며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이다”라고 말씀하시니 바로 그 순간 하인이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보이는 현실에 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상황이 좋으면 감사하지만 어려워지면 급세 낙심하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우리의 경험과 판단을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의 믿음은 달랐습니다.

**첫째,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에서 백 명가량의 군사를 지휘하는 지휘관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상당한 권위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며 “주님을 내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겸손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잠깐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위대한 스승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요 메시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둘째,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집에 오시지 않아도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하인이 나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백부장은 군인으로서 명령의 권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는 질병과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더 큰 권세가 있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삶의 문제가 찾아오면 말씀보다 현실을 더 크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크면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말하고, 길이 보이지 않으면 길이 없다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금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편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백부장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능력이 나타남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종랑을 향해 명하시니 바다가 잠잠해졌으며, 죽은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 그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는 때로 질병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으며, 인간관계의 아픔과 앞길 보이지 않는 답답함도 있습니다. 믿음은 그러한 현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눈앞의 상황은 어렵더라도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고,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며, 환경과 형편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도 낙심과 절망의 말보다 믿음과 소망의 고백이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이다.”

이 말씀이 백부장에게만 주어진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불드는 믿음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현실이 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으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 성결대학교 2383동기회, 필리핀 선교지 후원 식수 문제 해결 위한 정수 알약 지원

성결대학교 2383동기회(회장 진순천 목사)가 어려운 목회 환경 속에서도 선교지의 긴급한 식수 문제 해결을 위해 정수알약 후원금을 전달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상호 선교사는 최근 2383동기회 임원 및 동기 목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후원금이 현지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선교사에 따르면 지역 재개발 분쟁으로 마을로 통하는 도로가 전면 차단되면서 4만여

주민에게 식수를 공급하던 급수 차량이 중단돼, 주민들은 빗물이나 오염된 개울물에 의존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선교사로서 직접 개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생존의 위기에 처한 주민들을 외면할 수 없었던 한 선교사는 가장 시급한 문제인 식수 지원에 나섰다.

특히 알약 한 알로 20리터의 물을 식수로 정수할 수 있는 정수알약을 활용해 주민들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고 있다.

한 선교사가 사역하는 행아람교회는 현재

매월 약 500가정에 한 달분의 정수 알약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2383 동기회의 후원금으로는 약 3,000명에게 4개월 동안 안전한 식수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상호 선교사는 “귀한 후원금이 위기에 처한 주민들에게 생명의 물로 잘 전달되도록 정성을 다해 사역하겠다”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383 동기회의 부강한 발전과 모든 사역을 위해 기도한다”고 전했다.

[2383동기회 제공]

## 지역 복음화와 생명나눔 실천을 위한 헌혈 행사

“하나님 사랑 실천하는 사역 지속 해 나갈 터”

강서까치나눔장터 VMS나이스자원봉사단과 까치나눔협동조합(이사장 윤맹석 목사)이 지역사회 복음화와 생명나눔 실천을 위해 마련한 ‘헌혈의 날 새생명 살리기’ 행사가 지난 7월 11일 이뤄졌다.

이번 행사는 생명 존중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확산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헌혈을 통해 생명 나눔에 동참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적십자사 운영팀장, 총회 부서기 임태진 목사, 에레츠선교회 대표회장 이종이 목사, 모이선교회 사무총장 윤호균 목사를 비롯해 여러 선후배 목회자들과 여성 여전도회전국연합회 회장과 서울서지방회 여전도회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해 헌혈자들을 격려하고 행사를 함께했다.

이날 윤맹석 목사는 “헌혈을 통해 생명을 살



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이 됐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역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두란노교회 이상문 목사, CBS 광장 출연

현대사회에서 지역사회 속 교회의 역할에 대한 철학 피력

두란노교회 이상문 목사가 기독교전체널 CBS 광장에 출연, 현대사회에서 교회의 역할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이목사는 이날 본인 이 신학을 하계된 배경과 문턱 낮은 교회를 지향하게된 본인의 목회 철학 등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다.

이와 함께 두란노교회의 공간 운영 방법과 이를 활용한 지역사회에 기여와 아이들이 언제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의 접근 등에 대

한 노하우를 말하며 “직접적 복음 제시보다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방식이 더 본질적이고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응급돌봄센터의 운영과 이를 어린 이에서 성인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법 등에 대한 향후 계획도 이야기했다.

이목사는 마무리에서 “전도가 어려운 시대,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아니라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 먼저임을 이야기하고 지역사회



에 필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밀착업이 전도의 선행조건이라고 강조했다.

### 40일 성결(Holiness) 영적 성장 여정

“죄 사함을 넘어 성결로, 구원을 넘어 성숙으로”

- 40일 성결(Holiness) 영적 성장 여정 - 성결교육진흥원 가을학기 제자훈련과정
- 교육기간: 12주 집중 제자훈련 과정 - 2026년 9월 15일(화) ~ 12월 1일(화)
-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7:30 ~ 9:00
- 개강예배 - 9월 15일(화) 오후 7:30
- 종강예배 - 12월 1일(화) 오후 7:30
- 장 소 - 주님앞예배교회 2층 그레이스홀
- 훈련비 - 교재비 포함 70,000원

#### 이런 분들을 초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을 닮고 싶은 분  
성결과 성화의 의미를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싶은 분  
반복되는 죄와 영적 침체를 넘어 죄를 이기는 삶을 살고 싶은 분  
말씀과 기도,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고 싶은 분  
개인의 영적 성장뿐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선허 영향력을 끼치는 제자가 되고 싶은 분  
성결교회의 소중한 신앙유산인 성결의 복음과 성화의 삶을 다시 붙들고 싶은 분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고린도후서 7:1)

성결은 과거의 신앙유산만이 아닙니다.  
성결은 오늘 우리가 다시 살아내야 할 현재의 부르심이며,  
내일의 교회와 다음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거룩한 사명입니다.  
12주 후, 당신의 신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신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40일 성결 영적 성장 여정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진지하게 여기는 모든 분을 초대합니다.

###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성결교육진흥원

## 2026 가을학기 제자훈련과정 모집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제 진지하게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여정은 구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고, 죄를 이기며, 거룩함을 이루어 가는 삶, 곧 성결(Holiness)과 성화(Sanctification)의 여정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 저술가 케빈 드영(Kevin DeYoung)은 『우리의 성결에 뚫린 구멍(The Hole in Our Holiness)』에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죄 사함의 복음에는 큰 관심을 가지면서도, 정작 성결과 성화, 곧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 성장과 제자훈련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가?”를 넘어 “나는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40일 성결 영적 성장 여정은 단순한 성경공부가 아닙니다.  
말씀을 배우는 데서 멈추지 않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결한 제자로 변화되어 가는 12주간의 영적 훈련입니다.  
때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내 안의 죄와 욕심을 직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익숙했던 삶의 방식과 결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더 큰 기쁨, 죄를 이기는 더 큰 승리, 예수님과의 더 깊은 친밀감,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 그리고 한 단계 더 깊어지는 성결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따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멋진 필터를 입혀 사진을 찍을 때만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삶에 머물고 싶다면, 아마 이 과정은 여러분에게 맞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 모음이 아니라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사람”  
“죄를 이기고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고 싶은 사람”  
“예수님을 더 깊이 닮아가고 싶은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진지하게 시작하고 싶은 사람”  
이라면, 이 12주의 여정에 함께하십시오.

주관 |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성결교육진흥원

성결교육진흥원장 노윤식 박사(010-7294-5821 )

문의 | 선임 연구원 김희선 박사(010-5307-0908)